

레베카, 님은 여자 혹은 그 여자

강유정

1. 원작자 대프니 듀 모리에 Daphne du Maurier

배우 겸 연출가 제럴드 듀 모리에의 딸이며, 작가이자 화가인 조지 듀 모리에의 손녀이다. 런던 출생으로, 어린시절부터 열렬한 독서광으로 상상 속 허구의 세계에 매료되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파리로 가서 1928 년부터 단편과 산문을 쓰기 시작했고 1931 년에 첫 장편소설 『사랑하는 마음』을 출간했다. 이후 아버지 제럴드 듀 모리에의 자서전과 장편소설 세 작품을 발표했고, 『레베카』를 출간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작가 반열에 올랐다. 1932 년에 그녀의 열렬한 팬이자 군인이었던 프레더릭 브라우닝과 결혼했다.

대프니 듀 모리에의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독서 광으로 상상 속 세계에 매료되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 할 정도로 남성화자의 독백체 소설도 완성도 있게 써낸 그녀에게 <레베카>는 가장 대성공을 거두게 한 작품이다. 1938년 출판된 <레베카>는 발행 4년 만에 영국에서만 28쇄를 발행했으며,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화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며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긴장감을 세밀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서로는 『줄리어스』, 『자메이카 여인숙』, 『사촌 레이첼』 등의 장편소설 외에도 단편 「새」, 「사과나무」, 「몬테 베리타」 등과 희곡 <9 월의 조수>, 전기 『브란웰 브론

테의 지옥』『나선형 계단: 프랜시스 베이컨, 인생의 굴곡』 등과 자서전이 있다. 듀 모리에의 베스트셀러 작 가운데 「새」, 『레베카』, 『프렌치맨스 크리크』 등 여러 작품이 영화화되어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1977년에는 미국 미스터리 작가협회로부터 그랜드 마스터 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1969년에는 영국 왕실에서 여성에게 수여하는 데임 작위(Dame Commander, 남성에게 수여하는 Sir 작위에 준한다)를 받았다.

듀 모리에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의 여러 소설 속 배경에 등장하기도 한 영국 남서부 콘월 주에 정착해 살았다. 1989년 그녀가 사망하자 영국 작가 마거릿 포스터 Margaret Forster는 다음과 같은 헌사를 전했다. "대중소설을 쓰는 그 어떤 작가도 그녀만큼 멋지게 정형화된 틀을 벗어던지지지는 못했다. (.....)회의적 시각으로 비춰지곤 했던 대중소설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내면서 동시에 '진정한 문학'의 요건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작품을 써냈다. 이제껏 그 어떤 소설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이다."

2. 소설 『레베카』 (1938) 줄거리

주인공 '나'는 남편 맥심 드윈터와 유럽에 살고 있다. 그들은 호텔을 전전하며 맨들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집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 집은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몬테카를로에서 어떻게 그녀와 맥심이 처음 만났는지에 대한 그녀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회상에서, '나'는 반 호퍼라는 이름의 부유한 미국인의 젊은 여행 동반자로 일하던 중, 몬테카를로에서 갑부이자 백작인 맥심 드윈터와 같은 호텔에 묵게 된다. 단 몇 주간 그녀와 알게 된 맥심은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고, 둘은 결혼 후 맨들리 선조의 소유지

로 떠난다. 그러나 맨들리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들의 결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맥심의 첫 번째 부인 레베카는 지난 해에 그 땅 근처의 바다에서 익사하고, 레베카의 기억이 맨들리 저택에 망령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맨들리 저택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레베카의 죽음 후에도 레베카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그녀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특히 레베카의 헌신적인 하녀장이었던 덴버스 부인은 여전히 맨들리를 책임지고 일하며, 새로운 신부의 등장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며 그녀를 위협한다. '나'는 맨들리에서의 새로운 삶과 맞서면서 화려하지 않은 출신에 촌스러운 자신을 아릅답고 재능 있으며 지적이었던 전 주인 레베카와 결코 호의적으로 비교될 수 없음을 느끼며, 남편 맥심이 아직 죽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레베카의 서재를 둘러보다 책상 위에 있는 큐피드 석고상을 떨어뜨리고 그 사실을 숨기는데, 덴버스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하인들에게 이를 추궁함으로써 '나'의 도덕성이 위협받도록 유도한다. 이 사건으로 점차 '나'를 억압하는 괴물화된 맨들리 저택은 본격적으로 '나'를 옥죄어오기 시작하며, 급기야 덴버스 부인의 농간에 빠져 결혼 후 처음 여는 파티에서 레베카가 즐겨 입던 옷을 입고 나오는 실수를 범한다. 스토리의 긴장은 바로 이 순간, 폭죽에 의해 바다에 가라앉았던 레베카의 배가 떠오르면서 절정에 다다른다. 레베카의 사촌동생이자 비밀의 연인이었던 잭 파웰이 드윈터 백작에 의해 레베카가 살해되었다는 심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레베카가 탄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뚫은 구멍에 의해 침몰되었음이 밝혀지면서 드윈터 백작이 그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드윈터 백작이 레베카 살해 혐의를 받게 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드윈터 부부의 위기는 레베카의 난잡한 사생활과 재산을 갈취하려는 음모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소멸하기 시작한다. 레베카가 죽은 날 밤, 맥심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반대하며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베카 담당의를 통해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고 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맥심의 무죄가 드러난다. 사건의 해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한 맥심과 '나'는 맨들리를 향해 밤새 운전해 돌아온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덴버스 부인은 레베카와 맨들리 저택의 화신답게 저택을 방화함으로써 저택과 함께 비

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3. 소설 『레베카』의 의의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은 맥심의 전처인 '레베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재기발랄하고 미모였다는 전처의 망령이 이 저택에 붙어 있어 시중드는 하녀로부터 집안의 가구 등 심지어는 기르고 있는 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손도 델 수 없는 전부인의 그림자에 갇힌 주인공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남편의 고백으로 레베카의 정체가 밝혀지고 **서스펜스**와 미스테리가 계속된다.

가난한 고아로 자라 몬테카를로에서 비서로 일하던 주인공은 대부호인 맥심 드윈터를 만나 결혼한다. 영국 콘월주 해안에 대저택인 맨달레이를 가지고 있는 맥심은 1년 전 아내 레베카가 요트 사고로 죽은 뒤 침울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재혼하여 영국으로 돌아온 이들 부부를 맞는 가정부 덴버스 부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의 안주인 레베카를 무척 따랐고, 새부인을 모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집안에는 레베카가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마다 R자를 새겨 넣어 전부인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덴버스 부인은 맥심과 새 아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민다. 그 결과, 맥심과 주인공사이에는 나빠지고 그녀는 자살할 지경에 이른다. 그 무렵, 맥심은 레베카가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결국 레베카는 남자 관계가 복잡하여 남편과 말다툼 중에 죽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맥심이 보트와 함께 시체를 수장시킨 것이다. 주인공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레베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뒤 가라앉은 요트가 발견되어 구조작업 중 레베카의 시체가 인양되었고 레베카의 애인이었던 짝은 요트에 일부러 뚫어 놓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맥심이 레베카를 죽였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맥심은 무죄로 판결받고 결국 레베카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덴버스 부인은 레베카에 대한 실망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불속으로 사라진다.

소설 <레베카>는 여러 장르를 오가는 다양한 매력의 소설이다. 드윈터 백작과 '나'의 첫만남은 마치 하이틴소설의 로맨스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이지만, 두 주인공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대신 사고로 죽었다는 전 부인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공간과 전 부인을 숭배하는 인물들 속에서 끈임 없이 비교 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나가는 맨들리 저택으로의 입성부터 이야기는 치밀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미스터리 심리 소설로 변모해간다. 후반부에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잭 파웰이 등장해 드윈터의 살인 사실을 파헤치는 단계에 와서는 범죄 추리 소설로 급박하게 전개된다. 그렇기에 기존의 고딕 소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딕 로맨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써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설 <레베카>는 종종 <제인에어>와 비교된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억압하는 '집'이라는 공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데, <제인에어>에서 로체스터의 미친 부인이 간혀 있던 손필드 저택과, 죽은 아내의 영혼이 곳곳에 스며있는 것 같은 <레베카>의 맨들리 저택이 그러하다. 이 두 공간은 종국에 화염에 휩싸이며 두 주인공이 다시 결합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남녀 주인공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이차가 많은 연상의 남성 and 사랑에 빠진 순진한 여자주인공이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을 위협하는 유사한 여성 캐릭터의 존재도 눈여겨볼 만 하다. <제인 에어>에서는 밀실에 갇혀 있는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가 직접적으로 소설의 긴장을 만들어냈다면, <레베카>는 죽은 레베카의 망령에 이끌리는 충실한 하녀장 덴버스 부인을 중심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4. 등장인물

▪ 주인공 :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다. 어리고 내성적이며 맥심드윈터와 결혼하여 후처로 맨달레이 저택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곳곳에 있는 전부인의 흔적에 숨막혀하고 힘들어한다.

▪ 맥심 드윈터 : 아름다운 전부인 레베카와 결혼하지만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고 결국 레베카는 죽음에 이른다. 레베카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주인공을 만나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 댄버스부인 : 맨달레이 저택의 살림을 관리하며 레베카를 절대적으로 숭배한다.

레베카가 죽은후에도 살아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며 레베카에 대한 정신병 또는 집착 증 같은 사랑을 보여준다. 냉랭하고 표정없는 캐릭터로 주인공을 보이지않 게 옥죄인다.

▪ 레베카 : 맥심 드윈터의 죽은 전부인이다. 본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엔 R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으나 사생활이 문란하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결혼생활을 한다.

5.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레베카>(1940)

1)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

스릴러물의 명수인 영국 출신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미국의 유명한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즈닉의 설득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건너가 1940년 처음 감독한 영화이다. 그는 극중 주요인물인 레베카를 단 한 차례도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윈터 부인의 독백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공포 분위기를 마음껏 자아냈다.

히치콕 감독은 이 영화로 그 해 아카데미 영화제 11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우수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하였는데 그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카데미 작품상이다. 재미있는 점은 그해 작품상 후보로 그가 영국에서 감독한 '해외통신원(Foreign Correspondent)'도 경합하였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당시 여류 소설가 다프네 뒤 모리에의 음산한 2류 유령 소설을 소재로 하였는데 대저택의 웅장하면서도 음산한 이미지와 배경 음악은 후대 서스펜스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유령 같은 존재인 레베카의 과거, 그녀의 전 남편 맥스의 불안한 행동, 미심쩍은 집사 댄버스 부인, 범죄에 대한 망령과 의심, 비겁함과 광기 등 영화 전편은 어두운 그림자와 안개로 둘러싸이고 히치콕 감독은 자신이 준비한 결론을 향해 복선과 암시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이 영화는 히치콕 영화 중 독일 표현주의 미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레베카 모습을 일절 나타내지 않고서도 관객으로 하여금 레베카에 대한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레베카>는 1940년 스릴러와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첫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만들어졌다. 당대 최고의 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 조안 폰테인, 주디스 앤더슨 등이 출연해 이듬해 아카데미 최고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래 로렌스 올리비에의 강력한 추천으로 비비안 리를 캐스팅할 예정이었다는 이 영화는 현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치콕 감독의 스타일대로 흥미로운 진행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프랑수와 트뤼포가 쓴 <히치콕과의 대화>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영화 <레베카>는 히치콕 감독이 “이번엔 손가락을 떨어뜨려 볼까?”라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여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에 대해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엔 신인이었던 조안 폰테인은 치밀한 심리연기를 펼친 이 영화를 통해 일약 주목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으며,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레베카>는 어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며 안락한 공간인 ‘집’을 괴물화하여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인간에게 더욱 높은 수위의 공포를 안겨주는 소재로, 히치콕의 장기이기도 한 집이라는 공간의 잠재적 공포를 가장 잘 나타낸 영화로 손꼽힌다. 맨들리 저택 안에서는 피한방울 흘리지 않으면서도 저택이 가지고 있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커튼, 놀랍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레베카의 방안에 드리우는 검은 그림자, 댄버스 부인이 조용히 ‘나’의 머리를 브러싱하는 장면만으로도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맨들리 저택이 바로 공포이며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한 공간, 즉 죽은 전 주인 ‘레베카’ 그 자체로 표현됨으로써 영화의 세련된 긴장감을 높

이고 있다.

6. 히치콕 그리고 두 명의 여자

히치콕 영화에서는 여자가 두 명이 등장한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이면서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들을 다른 사람이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시선이다.

<현기증>의 남자는 같은 여자를 두 번 사랑한다. 여기에는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가짜'이고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진짜'라는 1차적인 속임수가 있다. 그 속임수에 '진짜'를 '가짜'로 위장시켜 첫 번째 사랑을 되찾으려는 남자의 계획이 덧붙여진다. 결국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가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기증>의 진짜 스텔은 그 남자가 끝내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파국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히치콕이 그려내는 인간관계는 대부분 <현기증>과 같은 선상에서 발생한다. 그의 할리우드 초기작인 <레베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레베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영화이지만 그 여자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레베카>에서 영화 전반부는 의혹이 시작될 것 같은 로맨스로 이루어져 있다. 관객은 조앤 폰테인과 케리 그랜트라는 인물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둔다. 그들 사이에 예전 부인 레베카가 조금씩 등장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조앤 폰테인이 대저택의 새로운 부인으로 등장하는 순간 '의혹'은 확장된다. 이야기 톤과 스타일이 바뀌면서 시점도 변화한다. 조앤 폰테인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정 이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품은 의혹 때문이다. 관객도 여주인공처럼 의혹에 휩싸인다.